서울파이낸스	2004년 4월19일

<기획특집> 사이버넷 - 해외시장 발판 마련해 선두주자로 나서

1998년 9월 설립된 사이버넷(주)는 스마트카드 지원용 유·무선 단말기 및 전자화폐·스마트카드 솔루션 전문기업으로서 현재 호주, 미국, 유럽 등 9개의 해외법인(연락사무소 포함)을 운영, 세계적인 기술력과 마케팅을 갖춘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는 회사이다.

사이버넷의 경우 까다롭기로 유명한 스마트카드의 국제표준규격인 EMV인증을 모두 획득해 그 기술력을 입증했다. 또 국제적인 요구에 발맞춰 지난해 3월, 4월에는 기존 EMV3.1.1 인증보다 한층 업그레이드된 EMV4.0인증을 획득, 국제적인 추세에 신속히 대처하고 있다.

국내 전자화폐·스마트카드 솔루션 업체로는 유일하게 해외 현지법인 및 유통 파트너 회사를 통한 직·간접영업을 기반으로 전세계 85개국에 스마트카드 지원용 유·무선단말기를 수출하고 있다.

2002년 아시아업체로서는 최초로 비자 인터내셔널이 진행하는 Visa Smart Breakthrough Acceptance Device Program의 스마트카드 지원용 EMV단말기 공급업체로 선정돼 전세계 21,000여개의 비자회원사로 자체 개발 생산한 단말기를 납품하는 성과를 이룩했다.

이는 세계적인 업체를 따돌리고 해외시장에서 비자의 적극적인 지원을 확보하게 됐다는 점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루어 낸 것이며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확보하게 됐다는 의미다.

지난해에는 이태리 체신부가 주관하는 우체국 카드 결제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2004년 말까지 수천대의 EMV단말기를 이태리 체신부로 공급하게 된다.

또 과테말라나 콜롬비아 등 남미지역에서도 EMV관련 프로젝트를 수주해 이 지역 EMV사업에 선두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기반 다지기를 확고히 하고 있다.

국내시장에서도 한국신용카드결제, 금융결제원, 한국모바일 페이멘트 서비스 등 VAN사의 단말기 공급업체로 선정돼 업계1위를 고수하고 있으며 최근 케이스넷과도 단말기 납품계약을 체결 4월부터 본격적인 제품생산에 들어간다.

이 회사는 매년 스마트카드 전시회 및 박람회에 참여해 해외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마케팅과 영업활동을 펼쳐 호평을 받고 있다.

사이버넷은 제품지향·고객지향·시장지향적인 경영방침을 기본으로 21세기 전자지불솔루션 산업의 글로벌리더를 목표로 올해 해외시장에서의 커다란 성과를 통해 305억원의 매출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